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

정광균(법상) *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
1. 불교정화의 배경
2. 불교정화의 이념
3. 불교정화의 과정
4. 불교정화의 의의
5. 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
Ⅴ. 나가는 말

요 약

본 고찰은 불교 정화의 배경과 이념을 근원적인 입장에서 돌아봄과 동시에 역사적 의의를 검토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인 동산 큰스님의 문도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려는 글이다.

그래서 필자는 불교정화의 배경을 선학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의 10개의 요인에서 찾았다. 그는 임제종운동, 선학원 창건, 승려독립선언서, 백용성의 대처식육 반대, 수좌들의 자생적 정화, 遺敎法會, 식민지불교 청산, 봉암사 결사, 수좌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전용사찰 요구, 불교의 포교 정신 등이다. 불교정화의 이념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공존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식민지 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고뇌와 지성으로 보았다. 근현대사에서 전개된 불교정화는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그는 청정한 승단을 회복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불교정화가 추진되었지만, 미진한 측면이 많아서 지금도 불교정화를 추진해야할 당위성을 갖는다.

그래서 동산문도는 불교정화의 정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였음을 인식하고, 정화운동에 앞장 선 용성큰스님과 동산큰스님의 정신을 재인식하고 계승해야 한다. 그리고 사상적인 불교정화를 추진한 동산큰스님의 상좌인 성철스님의 정신도 기억해야 한다. 요컨대 동산문도는 용성 - 동산 - 성철로 이어진 문도들의 불교정화의 계승의식을 유의하면서 근본불교를 실천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백용성, 현대불교, 동산문도, 불교정화, 실천

Ⅰ. 들어가는 말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패러다임은 正報와 依報의 淨化다. 淨化란 본래 僧團의 淨化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한국불교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僧家淨化이고 불교정화다. 그러면 僧家의 淨化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을 풀이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정토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정화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의 정토를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화는 망각하고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조금만 숙고해 보면 이 말의 의미가 결코 환경의 정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다. 이것은 아마도 기존의 정화에 대한 의미와는 다르다. 하지만 정화가 정토의 구현이라는 내용으로 바뀔 때에 진정한 불교의 정화를 담보할 것이다.

하여튼 불교의 정화는 일단 나비효과가 있다. 즉, 한 개인의 선구자가 갖는 사상이 바로 단체로 이어져서 범사회적으로 피어난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중핵을 이루는 내용 중에 모든 존재는 因緣生起하기 때문에 일체 지어진 것은 변화한다. 모든 존재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태어난 종족이나 가문에 의해서 그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누차 거듭해서 말씀하셨다. 즉,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四無量心을 가지고 四弘誓願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가엾이 여기며 기쁨을 나누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한량없는 마음가짐이고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체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더불어 삶의 결정체인 무루의 세계로 가는 八正道이며 불교의 三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조화롭고 어울리는 삶의 가치관과 깊은 사유와 바른 언어와 행동과 생활을 실천하고 계율을 준수하고 노력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통일하여 베풀고 시기적절한 말로 누구에게나 이로움을 주는 마음과 행위로 동고동락하는 삶의 패러다임이 부처님의 傳道宣言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정토구현이고 진정한 정화라 하겠다. 따라서 너와 내가 아애 없는 공동의 행복이 이 땅에 구현되는 극락정토의 현실화다. 이러한 불교정화는 불자라면 그 누구나 실현해야할 삶의 패러다임이다.

여기에 自覺覺他 覺行窮萬의 당위성을 가지고 베풀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空性에 입각하여 참고 견디고 온갖 조도의 품목을 이행하면서 四聖諦法를 자각하는 行相을 체현하는 선정에 전념한다. 그리하여 依報와 正報 모두가 空性의 청정을 완전하게 체득하여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르쳐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다. 나아가 완전한 경험적 지혜를 완성하여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傳法敎化다. 이것이 불교정화의 완성이고 동산문도가 나아갈 정화의식이고 실천내용이다. 이것은 바로 너와 내가 하나로 통일된 본래성불의 현실적 구현이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대로 살자.'이고 중도의 조화로운 삶의 지평이며,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 짓을 하면 불국토가 실현된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 나비의 효과를 실현한 근현대한국불교사에 '범어사라는 환경'에서 실천해서 구현한 구심의 주체가 바로 용성조사이고 동산조사이며 후손들이다. 이 분들의 치열한 불교정화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無常과 無我에 입각하여 달라진 현실에 다시 적응하는 중도적 실현이 우리 후손의 몫이다. 하여 본고에서는 불교정화의 가장 근원적인 입장에서 그 배경과 이념을 돌아보고 과정을 조망하여 의의를 검토하여 동산문도의 나아갈 불교정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고찰함에 기존의 연구 성과[123]를 바탕으로

불교의 정화는 바로 동산문도가 나아갈 실천내용이라는 점을 상고해 보고자 한다.

Ⅱ. 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

1. 불교정화의 배경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삼국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1천년의 星霜을 거치면서 누렸던 부처님의 혜명은 사라지고 조선조에 이르러 抑佛崇儒라는 이념아래 500년의 法亂을 지나는 동안 8천민의 하나로 추락하여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고, 草露佛敎가 되었다. 이를 상고해 보면 참으로 가슴이 메어져 질식할 정도다. 그런 와중에 일제의 침략으로 근근이 이어져 왔던 조선불교의 전통성과 수행풍토는 잠식당하고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국호마저 변경되어 버렸다. 이때 치열한 민족적 이념에 탑승하여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전통성과 정통성을 올곧게 유지하려는 선각자들이 계셨으니, 바로 여러 선구자들인 선학원 대중이고 그 가운데 용성과 동산이고 그 문도들이다. 만약 그분들의 정화정신과 求宗求道의 실천이 없었다면 아마도 현재의 한국불교는 왜색불교의 일변도로 바른 수행자들은 오늘도 방방곡곡을 헤매는 유랑승려로 도태되어 역사의 뒤안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그 실례가 바로 수행할 몇 개의 사찰을 분

---

123) 그동안의 연구는 용성조사를 중심으로 대각사상연구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동산조사에 대해서는『동산문도와 불교정화운동』(부산: 영광도서, 불교교단사연구소, 2008)이라는 2권의 대작이 구술로 입증하는 김광식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아직 연구할 분야가 산재하다. 나아가 진관스님의 학술적 연구로『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서울: 운주사, 2014)가 정교유착의 비판적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배해 달라는 간청마저 묵살한 내용에서 여실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여기에 불교정화의 당위성이 주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정화의식의 배경은 바로 개항 이후 개혁의식의 대두와 맞물려 승려의 도성출입금지의 해제[124]를 기점으로 활발해진다. 불교 내부적 정황은 그동안 침체되고 쇠락한 불교의 위상과 승가의 자질을 향상하려는 시도에서다. 즉, 불법에 정당한 이론과 강력한 실천력을 兼全해야 민중에게 불법을 지도하고 拔苦與樂의 교화능력을 갖추고 그 수단과 방법을 修得하고 이에 전념하며 세간의 존경을 받는 자라야 하기 때문이었다.[125]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일본 불교의 유입으로 자극을 받아 근대화된 포교당 설립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찰인 紹興寺와 元興寺[126]를 설립하여 그곳을 기점으로 삼아 불교의 승려와 사

---

124) 승려의 도성출입금지의 해제는 한국불교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지 공식적으로 1523년 이래 조선 500년 동안 배불숭유로 점철되어 승려의 도성출입금지가 되었다. 이는 공식적으로 도성에서 부처님의 전도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불교는 쇠락하여 공식적인 수행과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산중불교로 전락하였지만 국가의 책무는 가중되었다. 그 때문에 불교는 사회에서 정신적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락의 길을 걸어온 것이 도성출입금지의 해제에 의해서 자유롭게 전법하고 전도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전법하고 전도하려면 우선 그동안 침체된 불교의 수행과 교육의 부흥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의 자각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일부는 수행결사를 이루어 단행하고 일부는 불자의 개혁을 촉구하고 추구하였다. 그러나 불교의 개혁은 그리 녹록하지 못한 실정으로 대다수는 발달한 일본불교를 모방하여 타락하고, 소수는 결사와 더불어 개혁을 주창하면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 정통성과 전통성을 고수하려고 진력하였다. 그것은 바로 以戒爲師하고 已事究明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해방과 더불어 불교에 일어난 정화운동의 근본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125) 이능가, 「한국 불교정화운동의 제문제」,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부산: 영광도서, 불교교단연구소, 2008) p.526 참조.

126) 佛敎硏究會에서 1906년에 서울 동대문 밖에 元興寺에 설립된 불교단체다. 대한제국 때 불교계는 전국 寺社의 통일을 위해 동대문 밖에 원흥사를 세워 국내의 首寺刹로 삼고 13도에 각각 首寺를 두어 전국 사찰의 사무를 총괄하였다. 정부에서도 1902년 사찰 관리를 위하여 宮內部 소속으로 管理署를 두고 寺刹令 36조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1904년 사사관리서가 폐지되고 원흥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

찰을 관리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유학을 통한 개혁의식과 더불어 수행결사가 이루어져서 승려의 자질이 어느 정도는 향상되었으나, 일본의 불순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분별한 모방과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정세는 나라를 상실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리하여 유학생들은 일본을 등에 업고 전국의 사찰을 점거해 버렸다.

이에 몇몇 선구적인 의식을 가진 선각자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하였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찰에서 帶妻噉肉하는 일상화가 되어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통성과 전통성도 사라지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곧은 수행자가 수행할 공간도 사라진 사태를 당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여 왜색불교를 척결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하지만 6.25 남북전쟁이 발발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본격적인 선학원 중심의 비구승종단이 출범하여 정화불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화정신에 대해서 김광식 교수의 논문을 참조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로 정화정신을 피력하였다.

첫째로 한국불교의 종지를 수호한 임제종 현창운동의 정신이다. 이것은 이회광이 일본 조동종과 임제종에 예속시키려는 획책에서 일어난 용성조사의 정신이기도 하다. 둘째로 선학원 창건 정신이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수좌들의 정통 불교를 수호하려는 의식이다. 셋째

을 때 일본 승려가 원흥사 건물을 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불교연구회가 설립된 것이다. 설립의 주체는 奉元寺 승려 李寶潭과 華溪寺 승려 洪月初 등이다. 이들은 그 당시 서울에 도래한 일본 淨土宗의 포교사인 이노우에[井上]의 특명으로 연구회를 창설하여 신학문을 교육하고자 했으며, 청년승려들의 교육을 위하여 원흥사에 明進學校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淨土宗敎會章이라는 메달을 달게 하는 등의 이유로 조선 승려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이들은 자진 사임하였다. 이에 李晦光이 불교연구회 회장과 명진학교 교장의 후임으로 선출되어 두 기관을 장악한다. 이회광은 이 여세를 몰아 1908년 圓宗을 설립하고 초대 대종정이 되었다. 불교연구회는 불교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개화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으나 일본의 영향과 친일 승려들의 발호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08년 원종의 설립과 더불어 해산되었다.

로 승려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자주불교 정신이다. 이것은 자주독립하려는 민족정신에서 나온 구국의 정신으로 불교의 자주화와 전통불교 수호정신이다. 넷째로 백용성의 帶妻肉食 금지 요청 건백서 제출에서 나타난 정신으로 불교전통의 회복을 통한 불교의 자주화정신이다. 다섯째로 선학원의 재단법인이 선리연구원으로 전환되면서 수좌들이 종헌을 만들어 다수의 승려들이 타락한 것을 개탄하고 선종 중심의 종헌을 제정하여 공포한 선 중심의 수행정신이다. 여섯째로 선학원 관련 수좌들이 주도한 고승 遺敎法會를 통해서 청정한 승가의 종풍 회복과 전통적인 계율을 수호하려는 정신이다.[127]

일곱째로 불교계의 교육혁신안에 비구중심의 혁신으로 식민지불교의 청산이다. 여덟째로 봉암사 수행결사에서 제기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정신이다. 아홉째로 대처승 중심의 교단에서 수좌들이 전용할 사찰을 할애해 달라는 요구에 나타난 수좌들의 현실 타개 정신이다. 이러한 수좌들의 정신이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정화가 본격적으로 촉발하였다.[128]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더 첨가 하자면 불교의 교육과 수행의 여건을 마련하여 불교의 부흥과 위상을 높여서 중생을 교화하여 복되게 하려는 불교의 근본 전도정신이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에서 불교정화의 이념이 무엇인지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불교정화의 이념

불교의 淨化에 대해서 상고해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칠불통계인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129]

---

127) 김광식, 『현대불교의 재종명』(서울: 민족사, 2000) pp.383-391 참조.

128) 김광식, 上揭書.

129) 『出曜經』 권25(대정장4, p.741b)

라는 내용에서 드러난다. 또한 부처님 당시 七滅諍法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정화정신의 본령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佛敎淨化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공존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정화의 과정은 十事非法[130]과 大天五事[131]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나아가 대승불교의 발생은 인도불교에서 최대의 정화이자 가히 혁명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고 중국에서는 거의 7백년 내지 8백년을 거치면서 인도의 대승불교적인 혁명에 버금가는 선종의 탄생이다. 이른바 如來禪에서 祖師禪을 주창하는 '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다. 이러한 불교가 신라 말과 고려 초기에 전래된 조사선은 화엄과 유식의 교학에 바탕을 두고 중앙에 집중되었던 불교가 지방에서 산문을 개창하여 일대 혁신이 이루어졌다.

그런 가운데 교학과 선의 갈등이 유발하여 고려 초기에 敎禪幷修가 주

---

130) 十事非法은 불멸 후 1백 년에 가라육왕이 비야리성 사퇴가람에서 제2회 結集을 하게 할 때에 非法이라고 인정한 10事다. 1) 鹽事淨은 그 전날 받은 소금을 저축해 두었다가 식사에 쓰는 것이다. 2) 二持淨은 日中食한 뒤에 해 그늘이 2指될 때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隨喜淨은 밥 먹은 뒤에 또 먹는 것이다. 4) 道行淨은 도량을 떠나서는 먹은 뒤에 다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酪漿淨은 酥油・蜜・石蜜 등을 酪에 타서 밥을 먹지 않을 때에 마시는 것이다. 6) 治病淨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闍樓伽酒(술이 되기 전에 것) 등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7) 坐具淨은 몸이 크고 작음에 따라 좌구의 크기를 정한다는 것이다. 8) 舊事淨은 그 전 사람이 하던 일을 따르면 律에 위반되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9) 高聲淨은 따로 羯磨法을 짓고, 나중에 와서 억지로 다른 이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10) 金寶淨은 금・은・돈 따위의 보시를 받는 것이다.

131) 大天五事는 석존 입멸 후 백여 년경에 학승 大天이 전통적 보수주의의 불교를 반대하고 내세운 5개조의 새로운 주장을 말한다. 1) 餘所誘는 아라한에게는 번뇌로 漏失하는 일은 없으나 天魔가 와서 유혹하고 요란할 때에는 不淨이 흘러나옴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2) 無知는 아라한의 染汚無知는 없으나 不染汚無知는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다. 3) 猶豫는 아라한은 隨眠性의 의심은 없으나 處非處의 의심은 유예하여 결정치 못한다는 것이다. 4) 他令入은 경문에서는 아라한이 聖慧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해탈을 스스로 證하여 안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남의 가르침을 따라 비로소 아는 이도 있다는 것이다. 5) 道因聲故起는 4諦 등의 聖道를 일으키게 함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창되고, 고려 중기에 定慧雙修라는 기치아래 간화선법이 소개되면서 고려의 수행은 간화선 중심의 전통을 확립하여 고려 말에 마침내 임제선의 법통이 전래되어 정통성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역사는 안주하지 않고 無常性을 동반하여 抑佛崇儒라는 絶對絶命의 위기를 맞이하여 500년에 걸친 조선불교는 인류 세계 종교사에 초유의 사건으로 불교를 탄압한 法亂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初露佛敎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禪과 敎, 律은 면면이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불교의 승려는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가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근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西勢東漸의 제국주의에 동참하여 조선을 강제로 한일합방을 단행하여 庚戌國恥를 낳았다. 불교에 대해서도 검은 마수를 감추고 都城出入解制로 호감을 갖게 하여 조선불교계에 접근한다. 이를 간파하지 못한 불제자들은 몇몇 선각자를 제외하고는 현실에 타협하거나 동조하여 조선불교의 정체성인 정통성 내지는 전통성마저 상실한 현상을 낳게 하였다.[132] 그러나 몇 안 되는 선각들에 의해서 실천된 불교정화는 승단정화로까지 이어져 여러 가지 굴곡과 후유증을 낳으면서도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통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진행형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불교정화의 이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관점을 동반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로 국한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불교 내지는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전통성의 이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자들에[133] 의

---

132) 여기서 말하는 정토성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독신생활을 유지하면서 중생교화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유지하려는 것이 한국불교의 전통성이다. 후술하겠지만 1. 독신의 승려, 2. 지계수지자, 3. 4바라이를 범하지 않는 자, 5. 삭발염의자, 6.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초식을 먹고 생활하는 자, 7. 3인 이상의 단체생활한 자, 8. 비불구자 등의 비구, 비구니로 불교의 원형을 유지하는 승가와 그 전통을 지켜서 승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133) 김광식, 『현대불교의 재조명』(서울: 민족사, 2000);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서울: 민족사, 1998); 『동산문도와 불교정화운동』을 비롯하여 김경집, 『한국근대

해서 자세하게 연구되었기 때문에 불교정화의 이념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하기 이전에 한국고대 불교와 근대불교를 고찰해 보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화이념의 당위성은 어디에서 촉발하였는지를 간과할 수 없고, 정화이념이 정통성과 전통성을 확보하려면 이에 합당한 내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화이념 이전에 한국고대불교와 근대불교에서 선행된 결사정신이다. 이러한 결사는 주시하듯이 중국의 廬山慧遠(334~416)의 白蓮結社를 본받아 실천된 건봉사 염불수행결사에서 유래하여 고려조에 전해진다. 즉, 고려조의 시기에 북송의 慈雲遵式(964~1032)은 참법 중심의 懺悔結社와 동시대의 고승이었던 四明知禮(960~1028)는 延慶院에서 염불과 보시를 중시한 念佛施戒結社를 단행하였고, 이어서 茅子元(1086~1166)의 淨土往生의 白蓮結社가 있었다. 고대 한국에서도 건봉사 염불결사가 최초로 시행되었고, 고려 중기 普照知訥(1158~1210)의 조계산 수선사 定慧結社와 圓妙了世(1163~1245)의 만덕산 백련사 白蓮結社다.[134] 나아가 고려 말에 비록 신행결사는 아니지만 분열된 구산선문과 五敎의 통합을 도모하여 불교의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만일염불결사는 조선말기에 집중적으로 4회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結社는 뜻이 같은 종교적 성향을 지닌 수행자들이 공유하는 신앙과 실천의 약속을 맺고 주기적인 집회를 통해 수행을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다. 修行結社는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서 결사의 내용이 달라짐을 배제할 수 없다.[135]

이러한 신앙결사와 더불어 일부 개혁세력의 등장이다. 그 선구자들은 수계의식의 체계가 이루어지기 전의 승려인 이동인과 탁정식, 이윤고, 차홍식 등의 스님들이다. 이들은 개화파들과 친분을 쌓아 국정에 참가하였

불교사』(서울: 경서원, 2000); 진관,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등이다.

134) 韓普光, 『信仰結社硏究』(경기: 如來藏, 2000) 참조.

135) 韓普光, 上揭書 pp.102-104 참조.

다. 특히 李東仁과 無不스님은 선구자적인 개화의식을 가지고 서구 열강과 후속 주자인 일본의 문물을 목격하고 국왕에게까지 진언을 하였고 신군부의 개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기득권자들의 시기로 비운을 맞이하고 만다. 그러나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명종 이후에 실시되었던 승려의 도성출입금지령이 해제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1986년에 승려가 도성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반포하였다.

한편 불교계는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해 일본에 유학을 시켰으나 그들은 일본불교에 동화되어 모두 有妻僧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리하여 사찰을 점유하고 수행승들을 대부분 문전박대하여 점차 정화라는 당위성을 만들어갔다. 이에 맞물려 개항과 함께 도래한 일본은 포교라는 명목으로 가장하여 한국불교를 잠식하기 시작하여 한국불교의 정통과 전통의 정체성을 훼손하여 산찰의 관리는 물론 승려들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선학원의 비구승을 주축으로 타락한 불교의 정화가 개시된다. 당시 선학원 측의 비구승은 지극히 적은 수자로 정통성과 전통성을 유지하여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고자 진력하였다. 이것이 선학원과 태고사의 밀고 밀리는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선학원 내지는 불국사에서 요구된 사항은 그리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태고사 측에서 보는 관점은 絶體絶命의 생활공간과 생존공간의 상실이었다. 비록 정통성과 전통성의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고자하는 노력이었지만 가족을 거느린 대처승에게는 크나큰 절망이었다.

그러한 도중에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의 폐망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개화에서 개혁으로 개혁에서 정화로의 난제를 불교계에 남겨 놓았다. 이에 불교계는 본격적인 왜색불교의 철폐를 위한 본격적인 정화운동이 봉기하였다. 그런 와중에 미군정은 기독교 일색의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서 사찰의 정화를 요구하였다. 이런 정부의 의도에 맞추어 선학원의 정화이념이 실현되는 과정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진행되어갔다. 불교의

정화이념은 8대강령으로 1. 독신의 승려, 2. 지계수지자, 3. 4바라이를 범하지 않는 자, 5. 삭발염의 자, 6.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초식을 먹고 생활하는 자, 7. 3인 이상의 단체생활한 자, 8. 비불구자 등의 비구, 비구니로 한국불교의 원형승가와 전통승가 승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사찰을 청정하게 정화하는 것이며 以戒爲師하고 已事究明하는 것이다.[136]

이와 더불어 한국불교의 기본 방향의 대의는 안정된 수도생활,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사찰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운영, 현실적 포교방안의 모색으로 포스트 모던적 현실 타개방법의 추구, 다양한 도제양성의 실현, 복지사업을 통한 안정적 신앙생활 확대 등 정화이념의 구현이다. 이러한 동산문도의 이념은 덕산스님의 논문에[137] 자세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3. 불교정화의 과정

이러한 정화정신을 실현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일이었다. 불교의 정화과정에서 빚어진 내용들은 김광식 교수와 진관 박사에 의해서 자세하게 연구되었다. 이를 참조로 하면 불교 자체의 정화의식과 더불어 정부의 개입으로 불교의 자주성을 상실하고 막대한 불교 자산이 소진되어 본래 불교의 부흥을 이루려는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배태하여 수많은 후유증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 역사는 1954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 1962년에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그 기나긴 개혁과 정화의 공방은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사찰정화와 인적정화가 맞물려 敎的인 측면과 禪的인 측면의

136) 이능가, 「한국 불교정화운동의 제문제」,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부산: 영광도서, 불교교단연구소, 2008) p.527 참조.

137) 덕산, 「용성문도와 불교정화 이념」,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부산: 영광도서, 불교교단연구소, 2008) pp.628-652 참조.

대립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측면과 수행공간의 확보를 위한 측면이 대립되었다. 이러한 대립의 양상은 와전되기 시작하여 사찰을 점유하고 주지를 확보하는 극한 상황을 연출하여 불교의 정화정신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성격유형	주관	주체	국가관계	과정내용	과제	정통성
전통고수 보수→ 진보	선학원	비구측	의존적	결사→개혁 개혁→정화 정화→변질	공공성	임제종
현실타협 진보→ 보수	태고사	대처측	타협적	개혁→친일 친일→보수 보수→수구	사익성	태고종

위의 도표에서 범어사 문도가 참여한 주관과 주체는 선학원과 비구 측으로 불교정화에 동참한 분들이다. 이에 참가한 분들 중에 공식적으로 참가한 분들은 용성조사와 동산조사, 그리고 성철스님과 지효스님, 능가스님, 인환스님 등이다. 이 분들은 사찰의 공공성을 기저로 전통성을 고수하려고 임제종의 정맥을 주창하면서 결사에서 개혁으로, 개혁에서 정화로, 정화에서 그 정화의 본질을 망각하고 정부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비주체성과 불교의 정신과 가치를 상실한 측면이 감지된다. 그 결과로 물론 당시의 절박한 현실이기는 하였겠지만 결국엔 사찰과 주지의 쟁탈로 변질되어 버렸고 상호간에 많은 상처와 사찰자산의 소모로 부처님 傳道宣言의 근본정신이 사라지게 하고 말았다.

정화의 과정은 1954년 5월에 가시화되어 태고종이 종단을 창립한 1970년 5월까지다. 이러한 기간은 무려 17년이란 지루한 공방의 역사를 장식하면서도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전통성을 확보하였다는 불교정화의 의의를 배태하였다.

이 때문에 본래 정화를 통해서 불교의 부흥을 기획했던 도제양성과 대중포교, 역경사업 등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화 함께 많은 후유증을 낳는 한계점이 감지된다. 이제 종단은 아직도 진행의 과정이지만 많은 자체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정화의 당위성과 필연성이 있고, 나아가 그 본래의 정화정신과 불교의 부흥을 위한 의의를 실현할 적극성도 요구된다.

4. 불교정화의 의의

한국불교사에서 불교정화는 불교재산의 손실과 사회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완전하지는 안지만 부처님 당시의 청정한 승가를 회복하여 승가 본연의 승단을 지향하는 정통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불교정화 정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감시는 불교 자체의 정화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승가 상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종단의 정화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어쩌면 영원히 진행될지도 모른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교훈이 자체정화를 견인하고 있다. 불교의 삼법인 가운데 無常과 無我를 실현하는 교의에서도 당위성이 주어진다. 다만 그 대상과 정화의 의미가 이제는 불교만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정화는 의미를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즉,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해서 나타난 지나친 경제의식과 물화되어 버린 재가불자의 가치전도를 정토구현으로 인도하고 국민전체를 선도하여 이 땅에서 확대된 공간의 세계를 정토로 교화하는 책무다. 그것은 바로 투명하고 성실한 보다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를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이 땅의 어느 한 실골에서 일어난 사건은 곧바로 세계로 전파되어 우리를 더욱 맑고 밝게 살도록 감시하고 있다. 또한 불자의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의 실현은 바로 교단의 가치지향이면서 사회지형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과거를 교훈 삼아 계율의 준수는 물론이요, 사회적 깨달음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수행공동체의 결사나 개혁 내지는 정화가 아니라 이 사회의 깨달음을 실현시켜 이 땅의 정토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부처님의 유교를 진정으로 실현하는 보살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참다운 불교의 참다운 생명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화의 의미를 어느 특정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정화를 실현하여 해맑은 생명의 지구환경과 더불어 이곳에 사는 모든 생명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화의 내용으로 부처님의 근본적 가르침에 입각한 참다운 불교는 참다운 생명의 터전이라는 의식 전제한다.

즉, 참다운 불교란 개인의 이기적, 관념적, 자기중심적 가치체계를 벗어나 공존의 원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불교다. 이러한 불교는 2천 6백여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諸行無常과 諸法無我의 진리에 입각하여 모든 존재와 더불어 우주의 근본 원리를 실현하여 왔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삶의 현장에서는 一切皆苦와 涅槃寂靜의 진리로 현실의 당면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본래 행복한 존재임을 피력하였다. 이것은 我執과 法執으로 인한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 평화, 행복,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만 하면 자유롭게 광명의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다. 이것은 바로 자기 깨달음의 본성을 드러내어 완전한 부처님의 지혜의 생명을 이어서 역사화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는 것이고, 세계사의 흐름에 동조하려는 부처님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지구촌이란 확대된 공간에서 공존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파괴된 환경과 인간성을 회복시켜 진리의 생명, 깨달음의 생명을 원래로 회복시켜 발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다운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절대적인 생명, 공덕의 생명, 완전한 구원의 생명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사회와 역사 속에서 참다운 생명을 유지하려면 살아 있는 부처님을 잉태하는 깨달음의 지구촌락화다. 그것은 바로 내 생명 부처님 공덕 생명임을 절실히 믿고 깨달아 본래 나와 남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참다운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명은 모두 하나로 이어진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 세계와 우주, 불국정토 생명이다.

이와 같이 내 생명 부처님 공덕생명은 절대 평등한 참다운 불교의 터전에 살아 숨 쉬는 참다운 생명의 씨앗이다. 따라서 참다운 불교정화의식의 실현은 우리 중국과 일본, 한국은 물론 세계불교의 나아갈 사명이며, 살아있는 부처님을 잉태하여하여 나와 우리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우주를 불국토로 가꾸는 성스런 보살도의 장엄하고 숭고한 실천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한국, 세계의 불교도는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모든 존재와 우주의 생명원리를 더불어 사는 우리 생명으로 가꾸는 거룩한 바라밀행을 실천궁행한다. 이러한 내용의 자각이 아마도 불교정화의 의의일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산문도가 나아갈 불교정화의 실천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5. 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

대한민국은 불교계에서 정화불사가 진행된 즈음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다가 오늘날 저성장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매우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불교는 국민들에게 불교적 삶의 방식을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하고, 특히 불교가 여기에 앞장서야 하겠다. 불교는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처럼 양적인 것에 가치를 둘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提高해야 하겠다. 종교적으로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정체되지 않고 한국불교가 성장하는 길은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서 대중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조화롭게 행복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면서 국가와 승가가 쇠퇴하지 않는 長阿含經과 『遊行經』의 七不退法[138]에서 찾아보아야할 것이다. 물론 정화정신이 바로 청정한 승가와 사찰을 이루어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본의도 이어가야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밧지족의 칠분퇴법	승가의 칠불퇴법
① 밧지족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① 비구들이 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② 밧지족 사람들은 함께 집합하고 함께 일을 시작하며 밧지족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함께 행하는가.	② 비구들이 함께 집합하고 함께 일을 시작하고 함께 승가의 제반 행사를 치르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③ 밧지족 사람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옛날에 정해진 오래된 밧지족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가.	③ 비구들이 이전에 정해진 적이 없는 것을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모든 學處(戒本)에 따라 행동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④ 밧지족 사람들은 밧지족 중의 밧지 노인들을 존경하고 환대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④ 비구들이 출가한 지 오래되어 경험이 풍부한 장로비구들, 승가의 어른들, 승가를 이끄는 사람들을 모두 존경하

138) 佛陀耶舍共竺佛念 譯, 『佛說長阿含經』 卷第二(大正藏1, p.11b-c); 「용성문도와 불교정화 이념」 참고목록,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부산: 영광도서, 불교교단연구소, 2008) pp.653-659 참조.

가.	고 존중하며 공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⑤ 밧지족 사람들은 종족의 부인이나 여자아이를 폭력으로 꾀어내거나 그것을 만류하지 않은 일은 없는가.	⑤ 비구들이 이미 生起해 있는 再生을 초래하는 渴愛에 지배되지 않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⑥ 밧지족 사람들은 내외(內外)의 밧지족 조상의 사당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공양하고 그리고 이전에 바치고, 이전에 시행한 올바른 공양물을 버리지는 않는가.	⑥ 비구들이 숲속의 坐臥所에 있기를 원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⑦ 밧지족 사람들은 아라한에 대하여 올바로 보호하고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이 이 땅에 오도록 하고 이미 오고 있는 아라한이 이 땅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하는가.	⑦ 비구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또 착한 수행자들을 거기에 오게 하고 또 거기에 오고 있는 수행자들을 편안하게 머물러 있게 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정화의 정신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공동체의 결사가 현실의 모순을 타개하여 자체정화를 시도한 것이라면 개혁은 급진적인 방안이었다. 그리고 정화는 보다 강력하고 급진적인 정화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평소 승가가 위와 같이 실천하고 살았더라면 지난 정화라는 아픈 과정은 없었을 것이다. 위 七不退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⑥을 달리 해석하면 철저한 無所有의 삶과 수행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밧지족의 七不退法은 강대국에 잠식되지 않는 국가의 번영은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강대국의 이념적이고 이기적인 세계사의 비극이 아직도 한반도를 장식하고 있다.

Ⅲ.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은 불교정화의 배경, 이념, 과정, 의의, 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의 고찰은 많은 시일을 두고 보다 면밀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 내용은 너무나 피상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불교종계종의 정체성을 살리고 발전을 일으키는 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급진적인 정화방식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감지되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아가야 하리라 여겨진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령이면서 승가 아니 불가의 사명인 것이다. 따라서 칠불퇴법에 입각한 근본불교의 실천이야말로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첩경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화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을 치유하고 나아가 수행공동체의 결사정신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자체의 정화는 물론 사화와 국가, 지구촌을 정화시켜 나나가 불구토를 구현하는 정체성을 발현해야겠다. 이러한 방법은 본래 승가가 화합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에서 사무량심에 입각한 사홍서원의 구현일 것이다. 더구나 사회는 남북으로 이념적 갈등과 동서의 지역적 갈등, 사회적 불균형의 양극화 갈등, 세대 간에 빚어지는 가치관 갈등 등이 산재하다. 이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미 내재한다. 이를 연구하여 제시하는 연구소의 운영과 도제양성을 통한 미래의 대처, 아직도 미완성인 역경사업의 추진, 불교의 정화정신을 사회정화로 확대하는 일, 어른을 존경하는 질서의 확립, 재정의 투명화를 통한 사회적 불신의 해소다.

나아가 불교의 근간에 무상과 무아, 무소유의 실현으로 완전한 깨달음의 사회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좁아진 지구촌락을 불국정토로 유도하는 정화정신의 확대다. 따라서 불교의 정화의식은 곧바로 사회와 국가, 세계의 정토구현으로 이어져 세계의 평화와 더불어 정토구현이다. 이것이 용성문도 또는 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의 나아갈 길이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佛說長阿含經』 권2(大正藏 1)
『出曜經』 권25(대정장 4)
韓普光,『信仰結社硏究』(경기: 如來藏, 2000)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부산: 영광도서, 불교교단연구소, 2008)
김광식,『현대불교의 재조명』(서울: 민족사, 2000)
_____,『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서울: 민족사, 1998)
김경집,『한국근대불교사』(서울: 경서원, 2000);
진관,『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서울: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4)

* Abstract

The School of Dongsan Disciples' Purification Spirit and its Practical Contents

Kwang-Gyun Jeong(Beop Sang)*

This study was basically focusing on the background of Buddhist purification and its ideology, and looking over a historical meaning simultaneously. Through this, I'd like to find out which direction the disciples of the reverend Dongsan, a leader of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s, should go forward. So I found out the backgrounds of buddhist purification from the next 10 factors, with the researches on Seon Studies.

They are the movement of the Imje order, establishment of Seon Institute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y monks, opposition movement against having a wife and eating meats by Baek Yongseong, Seon monks' autonomous purification, Confucianist dharma society, Ending the colonial buddhism, Movement at the Bong'am monastery, Demands of using the exclusive temples only for Seon monks, and Buddhist missionary spirits etcetera.

He thought that the ideology of Buddhist purification was existing over time and districts, as the concerns and intelligence to overcome

*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Director. Research Office for Missionary Activities.

the problems of colonial Buddhism. The Buddhist purification has a great historical meaning developed in the modern history. Because he recovered the pure Sangha cluster. Under such a background, the buddhist purification was carried out though, there are still lots of loose ends. So it is the right thing to do for buddhist purification.

So the School of Dongsan disciples need to recognize that the spirit of buddhist purification was coincided with Buddha's teachings. And also we need to recognize and succeed to the spirits of the great master Yongseong and Dongsan, who led the purification movement. We should remember the spirit of Seongcheol Sunim, a disciple of the great master Dongsan who carried out the ideological buddhist purification.

In other words, the school of Dongsan disciples always need to think of spirits of Buddhist purification by the disciple monks - Yongseong, Dongsan, Seongcheol - and try to do our best for practicing the fundamental Buddhism.

Key words : Buddhist Purification, Practice, The School of Dongsan Disciples, Baek Youngsung, Modern Buddhism.

논문투고일: 2015.06.15. 심사완료일: 2015.09.25. 게재확정일: 2015.11.23.